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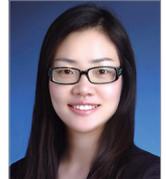
음양오행(陰陽五行)

강 무 속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이제 전통수의학의 기본 내용인 음양오행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양오행 하면 벌써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 같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일거라는데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든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요. 대학때 처음 생리학을 접했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이온대사에 대해서, 세포대사등등 처음부터 쉬웠던가요? 도통 외계어같은 느낌. 하지만, 차분히 그 안의 내용을 곱씹어 공부하다보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지요. 전통수의학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낯선 단어들이 한번에 이해가 된다면 세상 참 편하죠.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왜 전통수의학의 처음이 음양오행인지요?

이미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주선의 개발로 알게 되었고 각종 첨단장비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밝혀진 시점에 그것도 극도로 과학적 이야기 할 의학 분야에 음양오행이라니요? 전통의학의 시작되어졌던 1000여년전의 사람들에게 생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에서 먹어야 했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했지요. 어떻게 하면 자연에 순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었고, 이 자연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해석하여 그 이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음양오행하면 우선적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

적인 기초이론을 떠올리겠지만, 음양오행은 자연계를 파악하는 철학이론으로서 먼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이 이론이 다양한 학문분야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거나 응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음양오행학설은 동아시아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정치, 음악 등등 다양한 학문과 문화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서기전 1000여 년경에 이미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이론이 세워졌으며, 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이 결합된 상태에서 의학에 도입된 이후, 우주자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서 소우주라고 여겼던 인체의 다양한 생리병리현상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심지어 치료를 위한 약물의 약효에 대한 판단과 사용에도 음양오행을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인체를 동일시 한다는 이야기 또한 무슨 뜬구름인지 하실텐데요. 우주가 생성되어지고 진화해온 과정과 발전하는 과정이 인체가 생성되어지고 발육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노화되어지는 과정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연계의 현상을 인체의 생체반응과 비유하여 보았을 때 비슷하다는 것 이지요.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걷어내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였구요. 그 노력에 힘 입어 현재의 태안반도는 그 속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정화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것이이지요. 우리 인체는 어떨까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독주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간이 손상을 받겠지요? 인체의 정화력은 놀랍게도 일정시간이 지

나면 회복되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비슷하게 보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입니다.

음양학설은 주로 인체의 생리현상과 병리변화를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이용되었고, 오행학설은 주로 인체 장부조직기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용되었기에 음양오행의 이론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해부, 생리, 병리, 임상 및 약물학 등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1. 음양학설(陰陽學說)

최초의 음양의 개념은 햇빛의 향배를 의미하였다. 햇빛을 받아서 양광이 충분한 곳을 양(陽)이라고, 햇빛을 등져서 일광이 적은 곳을 음(陰)이라고 했다. 즉 음양은 자연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적 양면, 상대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최초에는 밝고 어둡다는 상대적으로 상반되는 의미를 대립시킨 것이었지만, 밝고 어두운 의미가 확장되어 모든 사물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연계를 비롯한 관념적인 대상까지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음양(陰陽)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며 이를 음양의 속성에 따른 분류 혹은 사물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표현한다.

표1. 사물의 음양 속성 분류

분류	공간	계절	성별	온도	중량	밝기	시간	운동상태		
양	하늘	봄,여름	남	열	가벼움	밝음	낮	상승	외향	운동
음	땅	가을,겨울	여	냉	무거움	어둠	밤	하강	내향	정지

표2. 인체의 음양 속성 분류

분류	인체구조			조직구조			기능활동상태	
양	겉	등	상부	피모	6부	기	흥분	향진
음	속	배	하부	근골	5장	혈	억제	저하

음양은 구체적인 실체보다는 현상이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 또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사물의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을 설명하거나, 서로 짝이 되어 비교될 수 있는 두 가지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된다.

의학에서 사용되는 음양은 생명현상과 생체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보다 구체적이며, 의학적 음양의 의미는 최초 음양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되는데, 역대 의학자들이 임상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해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학에서의 음양 개념은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도 나오게 되었다.(이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갖는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병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음양 개념을 응용하여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현대의학에서도 어느 연구논문에서는 비타민C의 유용성에 대해서 발표하는가 하면 반대로 비타민C의 유해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우리는 둘의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충분히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일관성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변하지 않은 음양의 이치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음양을 응용하는 내용이 변하고 점차 개념이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의학분야에서 활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오행학설(五行學說)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최초에는 꼭 자연계에 꼭 필요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로써의 의미가 강하였지만,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추상적 개념이 성립되는 단계에서 자연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섯 종류의 속성을 뜻하는 오행과 당시 생활에서 필수적인 사물로 파악되었던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연관시키면서 오행학설이 성립되었다. 즉, 오행은 생활에 필요한 다섯 가지 실용적인 재료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만물을 개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나 도구로 발전하였다.

음양으로는 모든 사물의 특징이나 변화를 상세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오행을 사용하여 사물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오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사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오행이 가지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며, 두 번째는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오행간에 존재하는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이라는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모든 사물의 변화를 설명한다.

오행을 배우면서 가장 큰 오류는 목·화·토·금·수를 물질로써만 본다는 것이다. 목(木)은 나무, 화(火)는 불이라는

공식을 세우는데, 오행의 의미는 물질보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 목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무가 맞지만, 이 나무에도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나무도 될 것이다. 오행의 나무는 가구에 사용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의 성장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씨앗에서 싹이 나오거나, 겨울을 지내고 나뭇가지 끝에 있는 겨울눈에서 새잎이 막 싹터 자라나는 에너지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입시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 의학에서의 오행학설이 가지는 위치이다.

표3 사물의 오행속성 귀류표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자연계	오계五季	춘春	하夏	장하長夏	추秋	동冬
	오화五化	생生	장長	화化	수收	장藏
	오기五氣	풍風	서暑	습濕	조燥	한寒
	오방五方	동東	남南	중中	서西	북北
	시간時間	평단平旦	일중日中	일서日西	일입日入	야반夜半
	오색五色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인체	오미五味	산酸	고苦	감甘	신辛	鹹鹹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육부六腑	담膽	소장小腸	위胃	대장大腸	방광膀胱
	관구官竅	목目	설舌	구口	비鼻	이耳
	형체形體	근筋	맥脈	기육肌肉	피모皮毛	골骨
정지情志	노怒	희喜	사思	비悲	공恐	

표3에서 보이는 오행에 따른 분류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행의 성질이나 속성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며, 일상생활과 의학영역에서 사용되는 오행의 분류내용은 더 많지만, 표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하였다. 오행의 분류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건이나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음양과 오행은 기원이나 개념, 발전 과정이 다른데 음양은 오행보다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반면 오행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현상의 원리나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음양이 사용되었으며, 이 음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오행이 사용되었다. 음양오행학설을 배우는데 있어서 음양과 오행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 만큼이나 음과 양의 관계, 오행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행간의 관계는 목·화·토·금·수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생상극(相生相克)을 말한다. 상생상극으로 인하여 다섯 사이의 정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균형이 상실되는 경우에 질병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생상극관계에 있는 어느 하나를 도와주거나 억제함으로써 균형을 회복시켜, 질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전통수의학에서의 음양오행학설 응용

전통수의학도 한의학처럼 음양오행설을 의학적 사유의 바탕으로 삼아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전통수의학 이론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음양오행학설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음양오행학설을 기초로 하여 장부, 경락, 기혈진액, 병인, 진단, 치료, 약물과 관련된 전통수의학 이론과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주 오랜 이론적 탐구와 임상치료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학이론과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철학적인 내용의 음양오행을 기계적으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음양오행이 전통수의학 영역에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생리상태나 병리상태를 분석하고 판별하는 기준이며, 생명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태와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생리활동의 항진과 저하, 흥분과 억제를 음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상상태에서 항진과 저하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에 의해 생리정상범위내로 조절된다. 호르몬이나 신경에 의한 제어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항진과 저하는 병리상태를 야기하는데, 이런 병리상태도 역시 음양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항진에 의한 병리상태를 양적인 병리상태로 파악하고 이런 양을 제어할 수 있는 음적인 약물이나 치료법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게 한다.

이렇게 음양오행학설을 이용하여 조직구조와 생리기능, 병리변화를 해석하고 치료원칙과 약물사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즉 음양오행학설은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예방 등 질병의 발생에서부터 치료와 예방까지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

신진대사는 계절적인 차이가 있으며, 하루 중에도 밤과 낮의 차이가 있는데, 음양으로 구분을 해보면 신진대사가 상대

적으로 활발한 낮은 양이 되고,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밤은 음이 된다. 계절적으로는 봄여름이 양이 되고, 가을겨울이 음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상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

생리작용에는 두 가지 대립된 힘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혈압상승, 분비액의 증가 등은 양적(陽的) 현상이고, 혈압강하, 분비액의 저하 등은 음적(陰的) 현상이다. 음양의 적절한 조절에 의해 혈압이나 분비액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과도한 흥분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이상 혈압상승은 고혈압이라는 병리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음성 되먹임처럼 음적인 기전에 의해서 혈압강하가 되지 않으면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고 고착화 될 수 있다. 과도한 흥분이나 스트레스는 오행 중에 화(火)에 해당되는데, 화는 향진, 촉진, 흥분, 강한 활동성 등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향진, 촉진, 흥분, 강한 활동성 등이 병리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경우이다. 이럴 때는 저하, 억제 등의 음적 성질이나 작요를 가진, 즉 혈압을 떨어트릴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염증에도 음양의 구분이 있다. 염증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급성 염증은 양적이고, 만성 염증은 음적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냥 막연하게 급성이니깐 양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급성 염증을 여러 가지 병리 특징을 만성 염증과 비교를 하여 음양 구분을 하게 된다. 당연히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히 항염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의 전체적인 음양상태와 증상이 나타내는 음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4. 음양오행학설에 대한 오해

음양오행학설에 대한 오해와 물이해는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 ① 음양오행만 알면 전통수의학은 대부분 이해한 것이다.
- ② 음양오행은 관념론으로 현대에 와서 이용가치가 없다
- ③ 음양오행을 몰라도 처방만 잘 숙지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통수의학은 음양오행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의학이론을 발전시킨 것인데, 전통수의학 이론은 음양오행학설과 장기간의 생리병리현상에 대한 관찰,

임상치료경험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음양오행 자체가 전통수의학 이론이 아니며, 음양오행은 생리병리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현상과 속성을 파악하는 기준이자 도구로써 사용된 것이다.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이 막연하게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형태로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왔기에, 종종 관념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한 의학이나 전통수의학은 여전히 많은 고민은 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된 환경이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다양한 약물이나 치료법에 의해 과거에는 불치로 여겨졌던 질환들이 하나씩 정복되었지만, 수명연장과 식생활 및 거주환경의 변화, 환경오염 등등의 문제로 새로운 양태의 질병이 나타나고, 이러한 질병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의학이 사명이기에, 새로운 질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의학의 과학화라는 요구에 따라 과거의 다양한 전통의학이론을 재해석 하는 작업도 필요한 시점이다.

처방만 알아도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처방도 음양오행을 바탕으로한 의학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질환은 너무 복잡다단하다. 그 처방에 맞는 병태를 만나게 되면 좋겠지만, 꼭 그러리란 보장이 없으며, 의학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이기도 하다.

현대과학의 철학과 방법론을 통해 의학을 배운 사람들에게 음양오행이라는 명제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은근슬쩍 넘어갈 수만은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론 일부 관념론에 휩싸인 동양문화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음양오행학설이 생리병리 변화를 파악하고 치료원칙을 정하는 기준이자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 ♡